



# 인천공항 제2터미널서 TV화질 격돌 LG전자

## 삼성전자

85인치 초대형 사이니지 44대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제품 설치

## LG전자

퍼스트클래스 라운지 스위트에 초프리미엄 시그니처 올레드 TV W

삼성전자가 LG전자가 18일 문을 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QLED TV와 올레드(OLED) TV를 설치한다. 연간 약 2000만명이 이용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곳곳에서 각각 QLED TV와 올레드 TV의 강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제2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대한항공 라운지 4곳에 올레드 TV 40대를 설치했다.

특히 퍼스트클래스 라운지 스위트에는 초프리미엄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를 설치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는 설치시 두께가 4mm가 채 안 돼, 마치 그림 한 장이 벽에 붙어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회사 측은 "미니멀리즘 디



LG전자가 18일 문을 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곳곳에 LG 올레드 TV 69대를 설치해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뛰어난 화질을 알린다. LG전자 모델들이 대한항공 퍼스트클래스 라운지 스위트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를 감상하고 있다. /LG전자

자인이 구현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제2여객터미널 로비에도 올레드 TV 29대를 설치했다.

LG전자는 대한항공 라운지에 'CES 최고혁신상'을 받은 'LG 4K UHD 프로젝터'도 설치했다. 이 제품은 4K UHD

해상도에 2500안시 루멘 밝기를 갖췄고, 150형 대화면을 보여준다.

또 LG전자는 제2여객터미널 곳곳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알린다. 교통센터, 입출국 심사대, 체크인 구역, 면세구역 등에 55형 LCD 사이니지 336대, 86형 울트라 스트레치 49대

등 LCD 사이니지 총 385대를 설치했다.

특히 지하 1층 교통센터에서 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구 위쪽에 55형 LCD 사이니지 256대를 이어 붙여 설치한 비디오편은 길이 175m 웅장한 위용을 자랑한다. 이 비디오편은 국내에 설치된 광고판 중 가장 길다.

LG전자는 3층 체크인 구역에 가로 4.3m, 세로 5.7m LED 전광판을 설치해 역동적인 한국의 모습을 상영한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손대기 HE 마케팅 담당은 "고객들에게 올레드 TV의 차원이 다른 화질과 디자인을 알려 프리미엄 TV 시장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제2여객터미널 로비에 55인치 QLED TV 29대를 설치했다. LG전자의 올레드TV 설치 대수와 같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85인치 사이니지 44대와 미디어월 218대를 포함해 다양한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제품 1600여대를 새로 설치해 항공편 이용을 위해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이용객 등에게 다양한 화면을 즐길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1여객터미널에 1900대의 사이니지를 놓은 데 이어 2여객터미널에도 1000대 이상을 새로 설치했다"면서 "사실상 터미널 모든 곳에서 삼성의 화질을 즐길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 오륜기 입은 '갤노트8 올림픽 에디션' 공개

### 삼성전자, IOC와 협력

선수·관계자에 4000여대 제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무선 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8 올림픽 에디션'을 17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 4000여대의 갤럭시노트8 올림픽 에디션을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국제올림픽위원회 관계자 전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추억을 순간순간 기록하고 전 세계인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모바일 기술은



삼성 갤럭시 노트8 올림픽 에디션. /삼성전자

전세계에 올림픽 정신을 전파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갤럭시노트8 올림픽

에디션을 통해 올림픽의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 전세계에 생생하게 전달될 것"이라며 갤럭시노트8 올림픽 에디션 발표를 환영했다.

갤럭시노트8 올림픽 에디션은 6.3형의 베젤을 최소화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한 단계 더 진화한 S펜, 최고 성능의 듀얼 카메라 등 갤럭시노트8의 최신 기능에 겨울을 상징하는 사이니 화이트 색상과 올림픽을 상징하는 금색의 오륜기 디자인을 입혀 특별함을 더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테마로 한 전용 월페이퍼와 올림픽 게임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오세성 기자 sesung@

## 평창올림픽 응원영상 조회 200만 돌파

### SK이노베이션, 공개 15일 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정유부문 공식 스폰서 SK이노베이션의 응원 영상이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달 29일 공개한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 영상이 15일 만에 조회 수 200만 회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스피드 스케이팅, 봅슬레이, 스키, 아이스 하키, 스키 점프 등의 동계올림픽 종목에 국민들의 응원이 더해질 때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영상에 담았다.

이번 캠페인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영상 각 종목에 등장하는 선수들의 유니폼 넘버의 의미는?"과 같은 다양한 질문도 나오고 있다. 사실 육상 선수의 '12', 스케이트 선수의 '42'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다. 다만 마지막 부분 스키점프 선수의 '23'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스키 점프 선수의 유니폼에 숫자 23을 새겨 넣어 제23



SK이노베이션의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영상. /SK이노베이션

회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하고자 했다"며 "스키 점프 선수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듯 한국 대표 선수단이 이번 대회에서 기량을 한껏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의 이번 응원 영상은 모션그래픽을 접목해 제작됐다. 모션그래픽은 비디오 영상, 애니메이션 기술 등을 이용해 사진 또는 그림들에 효과를 주어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법이다. 역동적인 모션과 선명한 색채를 활용해 정보 전달력이 좋기로 유명하다.

/오세성 기자

### 현대중

## 인니서 500억 규모 발전설비 첫 수주

현대중공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500억원(4800만달러) 상당의 이중연료 발전설비를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인도네시아 트루바자야 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전력공사가 발주한 총 86MW급 육상 엔진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 발전소에 4.1MW급 이중연료 힘센엔진 21대와 관련 기자재 등을 공급하고, 설치 및 시공은 현지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사인 트루바자야 엔지니어링사가 맡게 된다. 힘센엔진은 현대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중형엔진으로, 주로 선박의 추진이나 발전용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이중연료 힘센엔진은 디젤연료와 천연가스를 상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일반엔진보다 유해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엔진으로, 최근 가스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전시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혼다 올 뉴 오딧세이 주행 모습.

## 광각 카메라로 뒷자리 모니터링 가족 위한 진정한 '패밀리카'



### 혼다 '오딧세이'

'인기 있는 차량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혼다의 대표 미니밴 오딧세이는 기존 미니밴의 단점을 보완하고 탑승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했다. 미니밴은 좁은 트렁크 공간과 실내공간, 3열 탑승 승객과 대화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번에 혼다가 선보인 '올 뉴 오딧세이'는 이같은 단점을 최소화하고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로 거듭났다. 덕분에 1994년 최초 출시 이래 북미 시장에서만 매년 1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지난 2013년에는 미국 시장 미니밴 1위를 차지했다. 또 미국 자동차 전문 평가기관인 쉐리블루부의 '2018 최고의 잔존가치 어워드'를 수상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오딧세이는 지난해 11월 역대 수입 미니밴 사상 최대 월간 판매량인 245대를 기록했다.

올 뉴 오딧세이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시승을 했다. 올 뉴 오딧세이는 다양한 편의 사양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탑승자들의 편안함과 안전, 즐거움을 극대화했다. 우선 세계 최초로 '캐빈토크'와 '캐빈위치' 기술을 탑재했으며 2열 매

지 슬라이드 시트, 전자제어식 10단 자동변속기, 진공청소기, 혼다 센싱 등 전후무한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해 패밀리카 구매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캐빈 토크는 운전자가 이야기 하면 차량 내부 스피커를 통해 전달한다. 마치 항공기 기장이 기내 방송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캐빈 위치는 천장에 달린 광각 카메라를 통해 뒷자리 탑승자(2열, 3열 승객)의 모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다.

2열 좌석은 매직 슬라이드 시트가 적용돼 앞뒤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움직인다. 특히 2열 가운데 좌석은 탈착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실내 구성을 적용할 수 있다. 3열 탑승자의 편리한 승하차를 위해 2열 시트를 한쪽으로 몰아놓을 수 있다.

또 차량 내부와 매트 의 먼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가 차내에 배치되어 있다. 실제 청소기를 작동한 결과 흡입력은 일반 청소기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적재공간도 전 모델보다 늘어났다. 3열 뒤 적재 공간이 50mm 증가해 3열 시트를 폴딩하지 않아도 여행용 캐리어 4개 또는 쌍둥이 유모차 등 대형 화물의 적재가 가능하다.

올 뉴 오딧세이는 기존 실버, 블랙, 화이트, 메탈 색상에 레드와 그린을 추가되어 총 6가지 색상으로 국내에 출시됐다. 판매가격은 579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양성운 기자 ysw@